전남도, 멀꿀나무 활용 관절염 신약 개발

항산화·항염증·해열 등 특허 3건 획득

전남천연자원硏, 영진약품에 기술 이전

전남도는 1일 영진약품공업㈜(대표이사·류병환)과 도내 자생식물인 멀꿀나무를 활용한 '천연물 신약 관절염 치료 후보물질 개발'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는 이번 협약으로 수억원대의 기술이전료를 비롯해 앞으로 신약 매출액의 4%, 해외 이전 시 이전금액의 25%를 받게 된다.

멀꿀을 활용한 신약연구는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하자는 취지에 따라 이뤄졌다.

전남천연자원연구소는 지난 3년간 멀꿀나무 열매〈사진〉와 잎 등에서 항염증, 해열, 진통효과 등 다양한 효능이 있음을 확인했다.

으름덩굴과의 다년생 식물인 멀꿀나무는 제주와 다도해 섬 지역에 자생하고 있으며 열매는 식용과 약용, 관상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지난 2010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최초로 멀꿀 열매의 식품 원료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이후 동물시험 등 다양한 생리활성 연구를 통해 멀꿀의 항산화, 항염증, 해열, 진통 등에 대한 국내외 특허 3건을 획득했다.

최철웅 전남도천연자원연구원 박사는 "멀꿀나무에서 추출한 천연물소재는 기존 합성의약품의 관절염치료용 약품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높은 약효를 보였다"며 "재배농가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박사는 또 "영진약품과 공동으로 관절염 치료 부문에서 국내시장(4500억원 규모)은 물론 세계 시장(1200억 달러) 선점을 위한 신약 개발에 매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남도천연자원연구원은 도내 비교우위 생물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멀꿀 이외에도 황칠, 매실, 헛개 등에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장필수기자 bungy@

"논두렁 제초작업 제초기 사용하세요"

전남도, 207대 공급

"논두렁 제초작업도 이제 제초기를 이용하세요"

전남도가 논두렁에 제초에 독성이 강한 제초제 대신 논두렁 제초기 활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에 논두렁 제초기 207대(8억3000만원)를 공급했다.

상당수 농가가 영농 편리를 위해 논두렁 제초작업을 제초제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논두렁이라고 해도 농약을 사용하면 벼논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 친환경 영농의 큰 걸림돌이다.

또 제초제를 사용하면 풀뿌리까지 죽게 돼 집중호우 때 논두렁이 유실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연초 농업인 대상 시군별 순회교육에서 제초제의 폐해를 알리고 논두렁 제초기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전남도는 논두렁 제초기 공급 이외에도 친환경 영농을 위해 120억원을 들여 새끼우렁이를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친환경 농업단지와 일반 벼논 등 모두 10만ha에서 새끼 우렁이 농법을 활용하는 등 친환경 영농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법률구조공단 영광지소 개소

공익법무관 등 3명 상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은 1일 광주지부 영광지소 등 시·군법원 소재지에 9개 지소를 추가로 개소했다.

영광지소는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2길 KT 영광지사 3층에 자리하며, 공익법무관 1명, 일반직 1명, 서무직 1명이 근무하게 된다. 거점지소에 상주하는 공익법무관이 각 지소를 순회하면서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공단은 농어촌·무변촌 등 법률보호 취약지역 주민의 법적 생활 안정 및 법률복지 구현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전국 시·군법원 소재지에 67개 지소를 신설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09년 동해 등 15개 지소, 2010년 가평 등 15개 지소, 2011년 횡성 등 15개 지소, 2012년 예산 등 9개 지소, 2013년 남양주 등 9개 지소를 개소, 전국적으로 63개 시·군 지역에 지소가 설치돼 있다.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개소한 54개 지소의 법률구조사업 실적은 법률상담 70만6582건, 법률구조 1만6645건 등이다. 상담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주렁주렁 탐스런 해남산 포도 13년째 포도농사를 짓고 있는 임종일(55)씨가 1일 해남군 삼산면 자신의 농장에서 포도 수확을 하고 있다. 본격 수확기에 들어간 해남 포도는 5.2ha에서 10월까지 80여t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남군 제공〉

신안 '별미 축제' 관광객 몰린다

수산물 주제 매달 개최
지역특산품 판매 '효자'

수산자원의 보고인 신안군이 매달 개최하는 '별미 축제'가 인기를 끌고 있다.

1일 신안군에 따르면 최고 품질의 신안산 수산물을 널리 알리고 판매 증진을 위해 시기별로 매달 섬을 대표하는 수산물 13종을 주제로 한 별미 축제를 열고 있다.

별미 축제는 지난 3월 '봄의 전령사'인 간재미 축제로 시작됐다. 4월 흑산홍어, 5월 강달어(깡다리), 6월 병어와 바다송어 축제가 섬 곳곳에서 열렸다.

배를 타고 오가는 불편함 속에서도 수많은 관광객이 다녀갔다. 한 아름씩 특산품을 사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됐다. 특히 지난달 5일부터 5일간 지도에서 열린 병어축제에는 4만5000여명이 다녀갔다. 병어 3000여 상자 8억9000만원 상당이 판매되는 성과를 올렸다.

별미 축제 시작 때만 해도 이 정도로 성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

박우량 군수가 수산물을 알리고 제값을 받기 위해 지난 2007년 처음으로 병어축제를 열었다. 인파가 몰리는 등 성공 조짐을 보이자 간재미 등 다른 수산물로 확대했다.

올해는 수산물 13종으로 늘려 신안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게 됐다. 축제가 열리는 동안 수산물이 없어 못팔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박우량 군수는 "적은 예산으로 여는 별미 축제는 비용대비 면에서 다른 지역 대규모 행사보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소모성 행사를 없애고 지역 문화자원과 연계한 특산품 판매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반기에도 별미 축제는 이어진다.

8월(3~4일·임자도) 민어, 9월(27~28일·흥도) 불볼락, 10월(11~12·장산) 왕새우·뻘낙지(26~27일·압해도), 11월(2~3일·지도) 새우젓, 12월(7~8일·압해도) 김축제가 각각 열린다. 내년 1월과 2월에 굴과 바다토하 축제가 추가됐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신안 자은도 해넘이길 새단장

해수부 선정 '해안누리길'

해양수산부는 신안군의 자은도 해넘이길이 새단장을 마치고 개장했다고 밝혔다.

신안 자은도 해넘이길은 울창한 소나무 숲길, 해수욕장, 어촌체험마을을 연결하는 12㎞의 해안길로 해수부가 지난해 선정한 '대한민국 해안누리길'의 대표 노선 중 하나다.

해넘이길은 주변 해수욕장뿐 아니라 해발 363m의 두봉산,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칠발도, 2010년 산림청이 주관한 '전국 아름다운 숲 대회'에서 어울림상을 수상한 여인송숲 등도 함께 돌아볼 수 있다.

현재 신안 해넘이길과 부안 변산마실길 등 전국 36개 시·군·구에 52곳(총 505㎞)이 지정돼 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총화상을 받은 농협 함평군지부 직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농협 함평군지부, 총화상 수상

농협 함평군지부는 1일 농협 창립 52주년 기념식에서 총화상을 수상했다.

총화상은 각종 농협사업에서 탁월한 업적을 올리고 친절봉사 우수, 지역사회 및 계통조직과의 상생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사무소에 대해 농협중앙회장이 수여하는 농협 내 최고의 상이다.

함평군지부가 이 상을 수상한 이유는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돈독히 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계통 농·축협과의 상생으로 농협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안병량 함평군지부장은 "평소 농업인 조합원과 고객을 섬기는 자세로 대하고, 유관기관 및 계통조직과의 협력에 최선을 다한 점이 인정받아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함평군지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